

# 깨달음 지상주의는 실천 외면

했지요? 그렇지 못하다면, 수행자나 불제자는 스스로 부끄러워야 하고 스스로 직무유기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합니다.

연꽃은 진흙탕 속에서 핀다. 분별심과 차별심이라는 진흙탕을 벗어나면 그곳이 연화장 세계 청정국토다. 종후 스님은 수행자로 살아온 세월들에 한 없이 감사한다면서 훌쩍 떠나고 싶을 때 바람 메고 떠날 수 있는 운수의 길을 동경하고 있다고 했다. 수행자에게 떠남의 의미는 나이가 들어도 머리지 못하는 몸살 같은 것이다. 한 곳에서 불사를 하며 오랜 세월을 지내는 동안 그렇게 자유롭게 떠나는 꿈이 있었기에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의 행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종후 스님은 “우주만물이 다 청정법신인데 누가 누구를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느냐”는 말로 자연과괴를 부추기는 각종 개발 사업들을 나무랐다. 자연의 순환결을 무시하고 직선논리로 들이대는 삽질의 결과는 인간에게 돌아오는 엄청난 재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연도 하나의 생명체다. 그래서 인간의 개발논리로 인해 상처 나고, 상처 난 자연은 스스로 자활(自活)의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자연의 자활은 인간에게 감동하지 못할 재앙이다. 인간이 살기 위해 몸의 환부를 도려내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 때가 돼 인간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자연이 이 우주에서 인간을 도려낼 날이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종후 스님은 불교는 그대로 생명의 종교임을 강조하며 불자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이 생명운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나무에 꽃이 피어 정법안장(正法安藏)이 되고 잎이 무성하여 열반묘심(涅槃妙心)을 이루고 열매가 무르익어 실상무상(實相無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면면히 이어져 오고, 그 가르침은 경험으로 축적되어 언어문자를 빌어 대장경을 이루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말세(末世)를 향해 다가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교훈과 통신의 발달, 지식의 확산은 점점 인간에게 유익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문제는 물질문명의 발달이 인간의 마음을 윤택하게 해야 함에도 그 반대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종후 스님은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을 무시하는 탓이라고 말했다.

“인과법(因果法)만 제대로 믿으면 세상이 달라져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들 인과가 뭔가를 모르진 않아요. 잘 알고 있으면서 행동은 그에 부합되지 않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과거 사람들에 비해 얼마나 더 똑똑합니까?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 다시 말해 ‘선인선과(善因善果) 惡因惡果’의 간단한 이치를 머릿속으로만 알고 몸으



로 하는 행동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구부정하게 완만하게 흘러가는 물길을 직선으로 만들고 강둑에 의지하고 사는 숲한 생명들은 아랑곳 않고 시멘트로 강변을 단장한다고요? 그걸 개발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개발입니까? 자연의 질서를 위배하고 생명의 보금자리를 빼앗는 일이 항상되는 일이 아닌 줄은 삼척동자도 알아요. 자연의 흐름을 인정하고 생명의 가치를 더욱 존중하고 부양하는 일이 진짜 개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한 인연을 지어놓고 좋은 열매를 따먹으려 한다면 자연이 허락해 줄까요?”

은 나라가 떠들썩한 4대강 개발 사업은 선인선과 악인악과라는 ‘법(佛法)’의 안목에서 생각할 때 인간만이 아니라 우주법계에 어떤 것이 유익한가를 따져야 할 문제라는 것. 그러나 견해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보다는 허염없이 대립하는 것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다.

“그게 바로 중생심입니다. 집착하는 마음이지

요. 한쪽만 보면서 전체를 보고 있다는 착각. 이를 전도몽상이라 하던가요? 반대론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다른 입장을 설득하여 궤어 맞추면 된다는 아집이 세상을 ‘불타는 집’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를 <금강경>에서는 4상(四相,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상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공동체적 노력이 없이는 세상이 편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불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수행에만 몰두하고 세상일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구덩이에서 혼자 살아나겠다고 앉아 있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중생심을 버리면 부처가 되는가? 중생심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옛 스승들은 말로 떠들지 말라고 했다. 글로 남긴다고 그게 진리는 아니라고 했다. 말하고 글 쓰는 사이에 이미 진리는 중생심의 영역에서 또 하나의 망상으로 고착될 뿐이라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不思善 不思惡)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아상(我相)을 벗어나려고 생각하면 아상에 잡히고, 인상(人相)을 떠나려고 하면 인상에 끌리고, 중생상(衆生相)을 떨치려고 하면 중생상 가운데로 떨어집니다. 수자상(壽者相)을 잊으려고 하면 수자상이 머리를 가득 채웁니다. 발버둥칠수록 깊이 빠져드는 수렁과 같은 것이 번뇌의 실체인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겠다, 혹은 이루겠다는 목표와 함께 실천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불교를 왜곡시키는 깨달음 지상주의는 깨달음에 대한 공허한 이론만 강조하고 실천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불교가 아닙니다. 갈 곳을 정했으면 길을 떠나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심리 밖의 우물물을 마실 수 없는 겁니다. 네 가지 상에 사로잡혀 그것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네 가지 상을 자기화 시키고 그 속에서 자기를 녹여 버리라는 겁니다. 안살림 따로 바깥살림 따로가 아니라 안과 밖이 하나로 돌아가는 살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생심은 돌로 나누는데서 비롯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사에 매진하다보니 안살림을 잘 살지 못했다 한 말썸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종후 스님은 안과 밖의 살림살이를 돌로 여기지 않았기에 그렇게 큰 불사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불사를 진행하는 동안 안과 밖이 하나로 작용하여 여여한 살림살이가 되었을 것인 것 같았다. 집착할 수 있었다.

불기온 가득한 노적봉 아래 비로자나의 은 세상이 청정법신으로 거듭나기를 염원하는 노적사의 발원이 환한 물줄기가 되고 꽃향기가 되어 세상으로 퍼져 나가길 기원하며 하산 하는 동안에도 꽃이 피고 새들이 우짖고 있었다.

글·사진=임연태(시인·본지논설위원)



##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 90. 스리랑카 캔디의 불치성 장관

캔디는 스리랑카의 제2도시이다. 캔디의 심장 불치사는 부처님의 치아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곳. 그래서 이름도 불치사(佛齒寺)이다. 불치사의 스리랑카식 이름은 달라다 말리가와(Dalada Maligawa)이지만 영문으로 작성된 각종 스리랑카 관련 서적에서도 달라다 말리가와라는 고유명사 보다는 ‘Temple of the Tooth(치아 사원)’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소개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불치사라는 이름이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 부처님의 치아 사리가 모셔져 있다는 불치사의 의미 자체가 하나의 고유명사로 사용될 만큼 이곳 캔디의 불치사는 세계적인 불교 성지이다.

가슴에 안고 3층 법당에서부터 1층 코끼리 등에 오를 때까지 중간에 쉬지 않고 1km 이상을 걸어야 한다.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시가행진을 하는 날 나는 성관(省館)에 들어가 장관을 뵈고, 정장 입는 곳으로 갔다. 그곳에서 불치성 장관은 16m가 넘는 백색 무명베를 다리부터 시작해 머리 위까지 올리는데 자그마치 30분이 걸



불치사 전경.

불치성 장관은 “우리는 행복하다. 세계에서 오직 하나 뿐인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스리랑카는 망하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 인내하고 온화하고 수행자를 만나서는 적당하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 또 형편 따라 배우고 기술을 익혀 질제하고 훈련하며 의미 있는 말을 나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고 말하며 즐겁게 식사했다.

이어 장관은 “나눔을 통해 정의 실현하며, 하늘과 땅의 보호를 받고, 남으로부터 비난받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악을 싫어 멀리 여의고, 술 마시는 것을 알맞게 절제하고,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일행은 한참동안 <행복경>을 주고받으며, 이

### 석가족 출신 불치성 장관... 그의 미소에서 부처님 보여

리아의 바위공전과 함께 불치사 순례는 스리랑카 여행의 절정으로 손꼽힌다.

수도 콜롬보가 정치·경제의 도시라면 캔디는 종교문화의 도시이다. 부처님 입멸 후 100년경 태어난 아소카왕이 그의 자녀들에게 부처님 치아사리를 건네 스리랑카에 전하게 한 것이 오늘 날까지 남아있는 불치사이다. 이 치아사리를 보호하고 있는 불치사에서는 매년 거국적으로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시가행진을 하며 중생의 평안을 기원하고 있다.

스리랑카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불치성 장관이 있다. 내가 본 석가족 출신의 불치성 장관은 키가 220cm 정도 되고, 또 체구가 두툼하고 거무스름한 얼굴을 한 거구였다.

불치성 장관이 부처님 치아사리를 모실 때면 16명이나 되는 옷을 입고, 8kg이 넘는 사리함을

했다. 그리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장갑도 끼고 3층으로 올라가 부처님 사리가 모셔진 사리관을 들었다. 그 앞에는 수십 명의 국악대가 꽃 관을 쓰고 팔과 다리에 수십 개의 악세사리를 걸고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니 약기소리가 장안을 흔들었다.

불치성 장관이 탑 내부를 세 바퀴 돌고 밖으로 나와 아름답게 장식한 코끼리 등에 사리관을 실으니 같은 모양으로 장식한 36마리의 코끼리들이 코를 흔들고 소리를 지르며 행진을 시작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수천 관광객들과 수만 명의 국민들이 꽃을 던지며 행렬을 구경하는데, 군인, 학생, 예술가들이 갖가지 축제를 즐기며 밤새도록 행진했다.

일행은 교외로 나가는 코끼리들을 전송하고 다시 불치성 장관실로 들어와 장관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는데, 먹는 것도 보통사람의 세 배는 먹는 것 같았다.

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과 이 세상 모든 존재들에게 행복이 있기를 빌었다. 그 자리는 스리랑카의 과일과 향내 나는 음식들이 분위기를 무르익게 했다.

청정하게 살며 수행하고, 거룩한 진리를 관조하고, 열반을 실천하는 사람이자 세상의 많은 일에 부딪치면서도 마음 흔들리지 않고 슬픔 없이, 티 없이 안온하게 살아가는 불치성 장관과 석가족에게 영원한 행복이 있기를 두 손 모아 축원했다.

석가족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석가모니 부처님의 상호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으면 이 불치성 장관을 보면 된다고 생각했다. 자기 종족에서 부처님이 탄생하고, 그 사리가 스리랑카에 와 있다는 사실을 크게 자랑스러워했던 불치성 장관. 그의 근엄하고 사랑스런 모습 속에 항상 미소가 팡팡 차 있던 모습이 아직도 아련하다.

신용신인(신인)가수  
■재량권 수권(상장)인도  
■관 4년(4년)수권(상장)인도  
■높 4.15m  
■직경 1.5m  
■중량 1.2t  
■무게 1.25kg

## 대한민국 상감청자 법륜대(운장대)

### 법륜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 법당에서 돌리는 동안에

### 현생과 전생업장이 소멸되는 운장대 기구입니다

법륜대는 권선문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천불 한 분 한 분에 명패를 걸 수 있으며 안으로는 금강경에 이름을 적어 복장까지 시켜줍니다.

[경전 복장 실질적인 기능] 천년 고찰 및 크고 작은 사찰에서 자신과 가족 이름을 법륜대에 봉장하여 영구히 모시는 감동으로 불자들의 소망성취를 위한 기구이자 경전에 있는 실질적인 기능 운장대입니다.

[손 길 따라 돌리지는 법륜대] 우리나라 초유의 상감청자 법륜대로 밖으로는 이름을 달 수 있고 안으로는 1,080권의 금강경(소경축)을 봉장할 수 있어 사찰 경계가 걱정없는 천불전이자 년년월월 장등(인등)할 수 있는 다목적 법륜대입니다.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사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께 연중4회(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낼 하시는 혜택을 드립니다.(카드가능)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0 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령리 1156-4 달마사